



설 연휴 가볼만한 곳... 사려니숲길·꽃자왈

한라수목원·서귀포 외돌개도 명소로 뽑혀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필수

올해 설 연휴는 5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로 가족나들이 나시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설날 풍경은 2년째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제주 자연을 찾아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는 것은 어떨까.

▶제주 꽃자왈=‘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꽃자왈’은 나무와 덩굴, 암석 등이 어우러져 생태적으로 안정된 천연림을 일컫는 제주도 방언이다.

제주 꽃자왈은 서부지역인 한경-안덕 꽃자왈, 애월 꽃자왈, 그리고 동부의 조천-한덕 꽃자왈, 구좌-성산 꽃자왈 지대는 제주의 4대 꽃자왈로 불린다.

이중 서귀포시 대정읍에 소재한 제주꽃자왈도립공원은 제주의 대표 자연자원인 꽃자왈의 생태적 안정성을 확보해 자연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코스는 지역주민들이 목장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었던 ‘태우리길 1.5km (30분)’,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들었던 ‘한수기길 0.9km (20분)’, 한수기오름 입구에서 우마급수장으로 이어지는 ‘빌레길 0.9km (20분)’, 신평리 마을공동목장 관리를 위해 만들었던 ‘오찬이길 1.5km (30분)’, 원형 그대로의 꽃자왈 특이형인 ‘가시낭길 2.2km (왕복구간/45분)’ 등 5개다. 특히 최근 탐방안내소 옥상정원 조성, 야외 파고라 설치, 전망대 도색 공사, 옥상

정원 조성 등을 완료해 쾌적한 탐방 환경을 갖췄다.

이 밖에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화순꽃자왈 생태탐방 숲길, 제주시 교래자연휴양림 꽃자왈, 애월읍 소재 꽃자왈 금산공원 등도 걷기 편하게 데크시설이 조성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사려니숲길=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는 ‘사려니숲길’을 추천한다. 경사가 별로 없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이다. 사려니숲은 유네스코가 지난 2002년 지정한 제주생물권보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숲길은 제주시 봉개동 절물오름 남쪽 비자림로에서 물차오름을 지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사려니오름까지 이어지는 15km가량의 숲길을 말한다.

해발고도 500~600m에 위치하고 있는 사려니숲길은 완만한 평탄지형으로 주변에는 물차오름, 말차오름, 괴평이오름, 마은이오름, 거린오름, 사려니오름 등과 천미천계곡, 서중천계곡 등이 분포하고 있다.

식생도 다양하다. 졸참나무, 서어나무, 산딸나무, 때죽나무, 단풍나무, 참꽃나무 등 78과·254종이 분포하고 있다. 육식성 포유류인 오소리과 제주족제비, 팔색조 등이 서식하고 있다. 큰오색딱다구리, 박새, 곤줄박이 등 산림성 조류와 원앙, 검은머리해오라기 등 산림습지 주변에 서식하는 조류도 관찰할 수 있어 생태 교육에도 좋다.

▶한라수목원=도심 속 공원 한라수목원은 20만㎡에 이르는 넓은 면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한적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거기에 제주도 자생식물 790종을 포함해 1100종의 식물이 있다.

한라수목원의 구성은 키가 작고 여러 개의 가지를 가진 눈향나무, 가막살나무, 작살나무, 백랑금 등 관목이 우거진 ‘관목원’과 제주의 상징인 녹나무와 개가시나무, 왕벚나무가 식재된 ‘교목원’, 덩굴식물이 있는 ‘만목원’, 연못 위에 어리연꽃 등이 피어난 ‘수생식물원’ 등이 있다. 단, 한라수목원은 설날 당일에는 휴관한다.

▶서귀포 외돌개=외돌개 주변 해안은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해식절벽과 동굴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올레길 7코스에 속해 있어 올레길을 여행할 때 꼭 들려야 하는 명소 중 하나로 꼽힌다.

외돌개 전망대에 오르면 시야가 확 트이면서 섬섬과 문섬, 새섬이 한눈에 들어온다. 여기서 멋진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좋다. 섬 사이로 고기잡이 배와 유람선이 오고가고, 해녀들이 숨비소리를 내며 물질을 하는 모습까지 어우러진 해안 풍광은 볼 때마다 탄성을 자아낸다. 외돌개 뒤로 보이는 범섬에 석양이 어릴 때의 경관은 더없이 아름답다.

외돌개 주변에는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어 관광객들이 산책을 즐기며 푸른 바다와 멋진 바위를 감상할 수 있다. 돈내코,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새연교 등 다양한 관광명소도 있어 함께 둘러보기에 좋다.

설 연휴 기간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야외활동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하자.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축하합니다



사무관



고 병 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장)



김 상 범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4·3보상지원팀장)



송 영 옥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꽃자왈생태관광팀장)



정 미 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장)



허 정 범

(대정읍장)



김 성 철

(주)삼성에스원 제주지사장

사무관 및 (주)삼성에스원 제주지사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재 제주시 정우회 회장 허 헌 식 외 회원 일동